



2026 VISION

훈훈한 구역, 함께 키우는 아이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옴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전도서 4장 9절)



가정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충일교회 가정사역부

말씀

여러분은 "언제쯤 인정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나요? 열심히 공부해도, 운동을 해도, 친구들과 잘 지내려고 노력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빨리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때에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루아침에 왕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 하나님께 기쁨 부음을 받은 후에도 오랫동안 광야를 떠돌며 사울 왕에게 쫓겨다녀야 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고, 두려운 순간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왕의 자리를 빼앗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으로 와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에게 "우리는 왕과 한 몸입니다"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와 지도자로 세우셨음을 인정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은 뛰어난 능력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가장 알맞은 때에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때로는 기다리는 시간이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거나, 다른 친구들이 먼저 인정받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림은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성품을 자라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보다 빨리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하나님은 다윗을 가장 좋은 때에 왕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충일교회 가정사역부

